

조선 후기 『경악전서』의 수용

The Acceptance of *Jingyuequanshu* in the Late Joseon Dynasty

朴 薰 平 (Park, Hun-Pyeo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3.1 지식인의 교양서 |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황도연(黃道淵) 및 기타 |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 4. 『경악전서』의 전면적 보급 |
| 2. 최초 수용 시기와 의의 | 4.1 『동의보감』 해석의 틀 |
| 2.1 최초 수용 시기 고찰 | 4.2 『경악전서』 보급의 확대 |
| 2.2 정조 말기의 수용 사례 | 5. 결 론 |
| 2.3 『경악전서』 수용의 의의 | <참고문헌> |
| 3. 『경악전서』 수용의 심화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경악전서』의 수용 양상에 대하여 여러 문헌을 분석하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찰하였다. 1) 『경악전서』의 조선에서의 최초 수용 시기와 관련하여 1777년과 1780년이 중요하다. 2) 19세기 초 이후 지식인의 교양서로 널리 읽혔다. 3) 황도연은 『경악전서』의 조선화(朝鮮化)에 있어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4) 19세기 후반 이후 『경악전서』를 중심으로 의술을 행한 ‘경악파(景岳派)’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5) 일제강점기 이후 장개빈의 의학은 확고하게 한국 전통 의학 안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장개빈의 의학은 18세기 말 처음으로 수용된 이후 전염병 관련 내용이 우선 인용되었고, 점차 활용도가 높아져 일제강점기에는 확고한 주류 의학의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要語: 장개빈, 경악, 『경악전서』, 『의문보감』, 황도연, 홍역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nd reviewed multiple documents focusing on the *Jingyuequanshu*'s citations on the process of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Jingyue's medicin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s a result, the following facts were considered. 1) 1777 and 1780 are important for the period related to the initial acceptance of *Jingyuequanshu* in Joseon. 2)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Jingyuequanshu* has been widely read as the liberal arts book of Intellectual class. 3) Hwangdoyeon had a great influence on *Jingyuequanshu*'s Joseonization. 4) Existing manuscripts from the late 19th century can be used to estimate the existence of Jingyue's school of medicine based on the *Jingyuequanshu*. 5)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Jiebin's medicine was firmly established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In conclusion, since Jiebin's medicine was first accepted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epidemic-related contents were first cited, and its use gradually increased, making it one of the mainstream medicin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ey words: ZhangJiebin, Jingyue, *Jingyuequanshu*, *Uimun-bogam*, Hwangdoyeon, measles

*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조교수(lillipute@dsu.ac.kr)

투고일: 2020년 8월 3일 최초심사일: 2020년 9월 2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1일
서지학연구, 제84집, 137-161,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4.137>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장개빈(張介賓 1563-1640)은 자가 회경(會卿), 호가 경악(景岳), 별호가 통일자(通一子)로 명나라 말기 중국 회계(현재의 절강) 출신이다. 그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학 풍조를 추구하여 현재까지도 전통의학의 진단학과 임상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개빈은 자음강화(滋陰降火)한 치료법을 남용하던 기존 의학계의 치료 관행에 반대하였는데, 이 치료법은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의 하나인 단계(丹溪) 주진형(朱震亨)이 주장한 “양(陽)은 늘 넘치고 음(陰)은 늘 부족하다는 설[陽常有餘, 陰常不足論]”에 기초하였다. 장개빈은 금원사대가 특히 주단계에 대해 날이 선 비판을 하면서, 명문(命門)을 보(補)할 것을 강조하면서 보신약(補腎藥) 중심의 치료법을 구사하였다.¹⁾ 장개빈 등의 명대 온보파(溫補派) 의가들은 명문이 상화(相火)를 주장함을 긍정하면서, 약물 중에 육계(肉桂)와 부자(附子)가 들어가는 처방을 주로 구사하였다.²⁾ 그런데 『동의보감』은 주단계 등의 금원사대가 이론 중심으로 세워진 의학 체계였다. 그러므로 일면 장개빈이 저술한 『경악전서』의 수용은 조선 의학의 기본 틀이자 기초 이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던 『동의보감』 체제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³⁾

『경악전서』는 1636-1640년경에 완성되어 저자 사후인 1700년(강희 39)에 최초로 출판된 종합서이다. 1700년에 간행된 노본(魯本), 1710년(강희 49)에 간행된 가본(賈本)까진 널리 퍼지지 못하다가 1713년(강희 52)에 간행된 사본(査本)에 이르러 중국 전역에 널리 보급되었다.⁴⁾ 조선으로의 『경악전서』 수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조선 후기 의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경악전서』 「부인규(婦人規)」의 처방들이 『의문보감』, 『의종손익』, 『방약합편』 등에 재인용되는 양상을 보여주

1) 劉時覺, 『浙江醫人考』(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4), 199, 200.;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개정증보 한중의학사개설』(대전: 주민출판사, 2017), 341-342. 주단계가 주장한 “양(陽)은 유여하지 않고 음은 늘 부족하다는 설[陽非有餘, 陰常不足論]”은 음과 양을 명문의 수화(水火) 즉 진음(眞陰)과 진양(眞陽)의 문제와 결부한 것이다. 이영원, 윤창열, “주단계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의학학회지』 제5권(1991), 219, 227-242.

2)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개정증보 한중의학사개설』(대전: 주민출판사, 2017), 326-327.

3) 유하간(劉河間)과 주단계 등이 고한(苦寒)하고 한량(寒涼)한 약물로 신양(腎陽)을 다스리는 것은 온보파에서 용납되지 않는 치료법이었다.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개정증보 한중의학사개설』(대전: 주민출판사, 2017), 330. 장개빈의 의학이론과 『동의보감』 체제가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의 의학가들이 『동의보감』과 『경악전서』를 함께 교육하고 수록 처방을 같이 활용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금원사대가 의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의학론을 주장했던 장개빈의 사상과 『동의보감』 이론 체계는 이론 내면의 실질적인 적합성을 떠나서 이질적인 면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한 차이가 없다면 온보파의 저술은 국내에 수용 즉시 보급과 파급이 활발했을 것이다.

4) 하기태, “경악전서가 조선후기 주요의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1), 2-3.; 裴沛然, 『中國醫籍大辭典』(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1498. 본 연구에서 『경악전서』의 원문은 張介賓 『中醫臨床必讀叢書合訂本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1을 활용하였는데 이 책은 魯本을 저본으로 하고, 賈本과 査本으로 보충하였다.

거나,⁵⁾ 『의문보감』, 『마과회통』, 『의종손익』 등 조선 후기 의서에서의 인용부를 상세하게 고찰하였다.⁶⁾ 이들 연구에서 특히 『의문보감』은 최초 인용 문헌으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의문보감』의 저술 시기인 ‘갑진(甲辰)년’을 1724년(경종 4)으로 본 마키 사카에의 오류는⁷⁾ 『경악전서』의 도입 시기를 1713-1724년으로 보거나,⁸⁾ 영조(英祖)가 행한 보양법의 근거를 『경악전서』로 추정을 하는⁹⁾ 잘못된 분석을 초래했다. 이후 저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¹⁰⁾ 『의문보감』의 저술 시기는 1784년(정조 8)으로 비정(批正)되었다. 따라서 『의문보감』 저술을 기준으로 하면 1784년이 도입 시기의 하한이 된다. 저술 시기의 확정 이후 1777년(정조 1)에 조선에 들어온 『고금도서집성』과의 관련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는데, 『경악전서』가 이 책에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의문보감』에서 『경악전서』의 인용을 분석하여 『고금도서집성』과의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주명신의 행적에 대한 고찰을 추가하여 『경악전서』 수용 시기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논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의서 외의 문집 등에서 『경악전서』의 인용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선 후기 지식인층에서 이루어진 의학지식 향유와 전파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하고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악전서』의 최초 수용 이후 정조 순조 연간의 보급 확대, 철종 고종 연간의 조선화(朝鮮化), 일제강점기에 이어진 전면적인 수용까지 시기별로 『경악전서』의 주요 인용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살핀 점은 『동의보감』의 완성 이후 ‘동의(東醫)’로 표면화된 조선 의학의 강력한 구조 틀이 『경악전서』로 대표되는 새로운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용되어 갔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
- 5) 이지향, “경악전서 부인규가 조선후기 부인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7), 78-97.
 - 6) 하기태, “경악전서가 조선후기 주요의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1), 2-25.
 - 7) 三木 榮, 『補訂 朝鮮醫學史及疾病史』(京都: 思文閣, 1991), 212. 이후 김두종에게서도 반복되었다. 김두종, 『한국의학사』(서울: 탐구당, 1981), 389.
 - 8) 이지향, “경악전서 부인규가 조선후기 부인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7), 4.; 하기태, “경악전서가 조선후기 주요의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1), 5, 25.
 - 9) 김정선, 황상익, “조선 후기 내의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학 경향,” 『의사학』 제16권 2호(2007), 157.
 - 10) 주명신(周命新)의 생몰 시기(1729-1798년)와 해민서주부로서 활동시기(1764년), 의약동참 입속(入屬)시기(1790년)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유준상, “의문보감을 통해 살펴본 주명신의 의학사상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3), 7.;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a) 493.

2. 최초 수용 시기와 의의

2.1 최초 수용 시기 고찰

『의문보감』 외에 『경악전서』의 도입 하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 『경악전서』는 명대를 대표하는 의서로 청 조정에 의해 간행된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1728년)과 『사고전서』(1782년)에 수록되었다. 후자는 조선으로 도입되지 못하지만, 전자의 경우 1777년(정조 1) 진하겸 사은정사(進賀兼謝恩正使)로 중국에 간 서호수(徐浩修) 등에 의해 중국 현지에서 구입되었다.¹¹⁾ 물론 그 이전에 단행본 형태의 『경악전서』가 조선에 전래 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¹²⁾ 현재로서는 이를 고증할 자료는 없다.

17세기 중국 서적이 조선으로 전파된 경로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있다.¹³⁾ 의학서의 경우는 대개 서반(序班)¹⁴⁾을 통한 구입에 해당하며 실제로 본초서인 『본초강목(本草綱目)』(1712, 1720년), 양생서인 『존생팔전(尊生八牋)』(1720년)의 구입 사례도 있다.¹⁵⁾ 그런데 이들 책은 의서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조선에서 명물(名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 문인 사대부의 문예 취향을 충족시키려는 의도로도 쓰였던 책으로 추정되었다.¹⁶⁾ 따라서 큰 규모의 전문의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행원역의 직접적인 책 구입이 가능한 북경 유리창(琉璃窓)의 본격적인 체험은 1765년(영조 41) 연행한 홍대용(洪大容) 이후의 일이다.¹⁷⁾ 그러므로 『도서집성』이 조선에 전래되기 이전에 단행본 『경악전

11) 『정조실록』 1777년(정조 1) 2월 24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http://sillok.history.go.kr>>. [접속일 2020.7.15.]

12) 예를 들어 유만주(兪晩柱)가 쓴 일기 『흙영(欽英)』의 1778년 9월 17일 내용에 “5-60년 전에는 모두 대황이나 망초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근래에는 인삼·녹용·부자·육계가 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단계파에서 온보파로의 국면 전환인 셈이다. 즉 적어도 1778년 경에는 온보파의 치법이 유행하였다. 『흙영』 기록으로 볼 때 조선에서 명대 온보파의 수용은 1778년 이전으로 소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치법이 장개빈의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장개빈이 명대 온보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立齋 薛己 등 그보다 더 이른 시기의 온보파가 있었다. 그러므로 장개빈의 사상이 1778년 경 이미 수용되었다 단언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문헌으로 고증할 수 있는 부분만 다룬다.

13) 중국 서적의 경위에 대하여 첫째 정부 관청의 필요, 둘째 정세 파악을 위한 당안(檔案 각종 형식의 문서기록)류 구입, 셋째, 개인적 취향 혹은 학술상의 구입, 넷째 기증의 사례로 구분되었다. 부유섭, “연행록을 통해 본 강릉 연간 중국 서적 유입에 대하여,” 『한문학보』 제22집(2010), 275. 17세기 전기 중국과의 서적 교류에 대해서는 서반을 통한 구입, 곡옹대 후손가에서의 서적 구입, 중국 문사와의 교류를 통한 서적 교류, 천주당 선교사를 통한 서학서 접촉으로 정리되었다. 신익철, “연행록을 통해본 18세기 전반 한중 서적교류의 양상,” 『태동고전연구』 제25집(2009), 233-260.

14) 예부에 속하면서 외국 사신의 접대 및 통역을 담당한 이이다. 서반들은 사신에 대한 서적 판매를 독점하였다. 박수밀, “조선의 중국 서적 유입 양상과 그 의미 - 서반과 유리창의 존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0집(2011), 134-135.

15) 부유섭, “장동 김문의 서적 유통과 지식 재생산 - 명청 서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제41집(2013), 136-138.

16) 부유섭, “장동 김문의 서적 유통과 지식 재생산 - 명청 서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제41집(2013), 138.

17) 이흥식, “연행록 소재 북경 유리창 기록의 변화 추이와 의미 탐색,” 『한문학논집』 제41집(2015), 345-346. 그러나 이때도 서반의 감시와 행패로 인하여 자유롭게 유리창의 서적을 구입하기가 다소 어려웠고, 이러한 통제는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다 점차 완화되었다. 박수밀, “조선의 중국 서적 유입 양상과 그 의미 - 서반과 유리창의 존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0집(2011), 136-140.

서』가 수용되었을 가능성은 적다.¹⁸⁾

『도서집성』에서 인용된 『경악전서』 의론(醫論)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¹⁹⁾ 처방들은 각 인용서의 의론들 뒤에 방(方)에 함께 수록되었다. 『경악전서』 처방도 각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 의론 뒤에 따로 분리되어 수록되었다. 그런데 <표 1>을 보면 『도서집성』에는 「두진전(痘疹銓)」이 빠지는 등 전체를 수록하지 않았고 ‘신방팔진(新方八陣)’ 등 특유의 분류명도 없다.

『경악전서』가 인용된 문헌에서 『도서집성』에 없는 원문을 수록하였다면 해당 문헌이 저술될 당시에 별도의 단행본이 조선에 이미 도입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현재 알려진 『경악전서』의 인용서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은 주명신의 『의문보감(醫門寶鑑)』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문보감』에서 ‘경악’이라는 인용 표시 부분은 총 41개로, 본문과 함께 인용된 처방이 인용된 경우가 14개, 증여방(證餘方)에 인용된 경우가 27개이며,²⁰⁾ 인용서목에도 『경악전서』를 9번째로 수록하였다.²¹⁾ 주명신은 1790년 이전에 해민서주부(1764, 1768, 1777년)이거나 금위영약방(1786년)을 지내는 등 외의(外醫)만을 지내므로²²⁾ 『의문보감』 저술 당시(1784년)에는 내의원 소속이 아니다.²³⁾ 즉 주명신은 책을 저술하면서 『도서집성』을 참고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²⁴⁾

<표 1> 『고금도서집성』에 수록된 『경악전서』 의론(醫論) 일람

인용 수록 권	내용 분류	수록내용	『경악전서』 순서
권86	맥법(脈法)	맥신장(脈神章) 중	권5
권91	외진법(外診法)	전충록(傳忠錄) 상, 중	권1, 2
권92	외진법	전충록 상	권1
권95	장부	전충록 상, 중	권1, 2
권104	장부	전충록 중	권2
권105	장부	전충록 하	권3
권124, 130	두(頭), 면(面)	잡증모(雜證謨)	권26
권135, 144, 151	이(耳), 목(目), 비(鼻)		권27
권153	순구(盾口)		권26
권155	치(齒)		권28
권159	설(舌)		권26
권161	인후		권28
권182	홍복	상한전(傷寒典) 중	권8

18) 중국 내의 온보파 성행을 감안하면 단편적으로 일부 처방이나 이론이 수용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19) 『도서집성』 원문은 陳夢雷, 『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點校本』(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를 참조하였다.

20) 하기태, “경악전서가 조선후기 주요의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1), 8-9.

21) 본고에서 『의문보감』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http://viewer.nll.go.kr>> [접속일 2020.7.15.]을 활용하였다. 청구기호. 古7671-123.

22)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a), 493.

23) 외의란 내의원 외의 의학 관청에 소속된 의학관료로 내의(內醫)에 상대되어 사용된 용어이다. 의학관료가 아닌 경우 외방의(外方醫)란 말을 사용한다. 외의가 내의원에 입속되는 경우가 있지만 내의원 출신이 다시 외의가 되는 사례는 없다. 내의원에는 내의, 의약동참의, 내침의 세 부류의 의학 관료가 소속된다.

24) 홍한주가 저술한 필기류 책인 『지수염필(智水拈筆) 권1』을 보면 당시 『도서집성』은 규장각 소속이 아니라면 왕의 허락 없이는 왕의 사위라도 볼 수 없는 책이었다. 홍한주 저, 김윤조, 진재교 역, 『19세기 전문지식의 축적과 지식의 탄생 - 지수염필 상』(서울: 소명출판, 2006), 98-99.

인용 수록 권	내용 분류	수록내용	『경약전서』 순서
권187	요(腰)	잡증모	권25
권192	사지		권32
권202, 204	진음, 후음		권33
권220	풍(風)		권10
권227	비(痺)		권12
권230, 232	한(寒), 서(暑)		권15
권233	습(濕)		권31
권235	조(燥)	전총록 상 일부 변형	권1
권236	화(火)	잡증모	권15
권239	담(痰)		권31
권244	해수		권19
권249	구토		권20
권254	설사		권24
권257	곽란		권20
권260	체하(滯下)		권24
권265	대소변		권34
권268	임탁유정(淋濁遺精)		권29
권273	혈(血)		권30
권279	한(汗)		권12
권281	갈(渴)		권18
권283	효전(哮喘)	잡증모	권19
권286	달(疽)		권31
권289	학(瘡)		권14
권293	결(厥)		권11
권296	전광(癲狂)	상한전 중, 잡증모	권8, 34
권298	간(癰)	잡증모	권34
권299	온역(溫疫)		권13
권301	탄위(癰痿)		권32
권305	허로		권16
권309	종창		권22
권312	열격반위(噎膈反胃)		권21
권315	음식		권17
권317	적취		권23
권319	경계정충견망		권18
권323	부득와(不得臥)		권18
권324	성음		권28
권325	얼(呃)		권19
권327, 329	중독, 계충(諸蟲)		권35
권330	이양보익(頤養補益)	전총록 중	권2
권353	상한(傷寒)	상한전 상, 중	권7,8
권368	외과 부골유주(附骨流注)	외과검(外科鉗) 하	권47
권369	외과 유평(流風) 단독반진	외과검 하	권47
권370	외과 여양전풍(癰瘍癰風)	잡증모	권34
권374	외과 반화(反花) 천포양매	외과검 하	권47
권375	외과 영류우지(癭瘤疣痣)	외과검 하	권47
권382, 386	부인경맥, 태전(胎前)	부인규(婦人規) 상	권38
권388, 391, 395 399, 400	부인임산(臨產), 후산(後產), 봉루 제유질(諸乳疾), 부인몽여귀교(夢與鬼交)	부인규 하	권39
권402, 405, 428	소아 조생호양(初生護養), 소아진시(診視), 소아경간(驚癇)	소아칙(小兒則) 상	권40

또한 인용사례에 있어서도 주명신의 인용 출전이 『도서집성』과 별개임이 확인된다. 『의문보감』에 인용 표시된 『경악전서』의 처방은 41개로 다음 <표 2>와 같다. 처방 외에 『의문보감』에는 의안(醫案)을 인용한 부분도 권3 「고창(鼓脹) 경험(經驗)」에 2곳이 있는데, 의론(醫論)은 전혀 없다. 이들 다수 처방이 『도서집성』에서도 확인되지만 출전이 『경악전서』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권5에 실린 ‘석홍전(惜紅煎)’ 내용은 『경악전서 권50 · 신방팔진(新方八陣)』에 실렸지만 『도서집성』에는 미수록이다. 권6에 실린 ‘사미비아환(四味肥兒丸)’ 내용은 『경악전서 권62 · 소아칙고방(小兒則古方)』에 실렸고, 『도서집성 권412』에도 실렸다. 그런데 『도서집성 권412』의 경우 『경악전서』가 아닌 원래의 출전인 『증치준승(證治準繩)』으로 인용 표시되었다.²⁵⁾

<표 2> 『의문보감』에 수록된 『경악전서』 41처방 일람

수록 권	내용 분류 및 인용처방
권2 - 13처방	늑혈-진음전(鑢陰煎), 노혈-거원전(擧元煎), 변혈 증여방(證餘方)-수비전(壽脾煎), 허손 증여방-7처방: 대보음전(大補陰煎), 좌귀음, 우귀음, 좌귀환, 우귀환, 육미회양음(六味回陽陰), 이음전(理陰煎)
권3 - 3처방	구토-2처방: 태청음(太淸飲), 신향산(神香散), 조잡(嘈雜)-온위음(溫胃飲)
권4 - 13처방	고창 증여방-곽청음(廓淸飲), 성음-3처방: 사음전(四飲煎), 이음전(二飲煎), 패모환(貝母丸), 산기(疝氣) 증여방-2처방: 난간전(暖肝煎), 려향산(荔枝散), 이질 증여방-위관전(胃關煎), 학질 증여방-하인음(何人飲), 용폐(癰閉) 증여방-대분청음(大分淸飲), 유닉(遺溺) 증여방-공계환(鞏隄丸), 몽유(夢遺) 증여방-고진환(固眞丸), 비결(秘結) 증여방-제천전(濟川煎), 반진-옥여영(玉女英) ²⁶⁾
권5 - 6처방	붕루 증여방-2처방: 석홍전(惜紅煎), 옥관환(玉關丸), 구사(求嗣) 증여방-2처방: 찬육단(贊育丹), 소린환(毓麟丸), 임신-오음전(五飲煎), 산후-사신산(四神散)
권6 - 5처방	제갈(諸甘) 증여방-사미비아환(四味肥兒丸), 두진-4처방: 화위음(和胃飲), 대화중음(大和中飲), 소화중음(小和中飲) 구미이공전(九味異功煎)
권7 - 1처방	외과 증여방-우선무비환(遇仙無比丸)

선행연구에서 『열하일기』 기록을 통하여 주명신이 1780년(정조 4) 비장(裨將)이 되어 진하겸사은사(進賀兼謝恩使)의 원역으로 중국에 갔음을 밝혔다.²⁷⁾ 『옥진재시고』 <사진 1>을 보면 주명신은 1780년과 1784년 2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사행하였다.²⁸⁾ 1784년에 『의문보감』이 저술되므로 이 사행들은 『의문보감』의 저술 시기와 인용서의 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이다. 주명신이 1780년의 사행 길에 『경악전서』를 구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²⁹⁾ 이 때의 사행은 진하사은 겸 동지사(進賀謝恩兼冬至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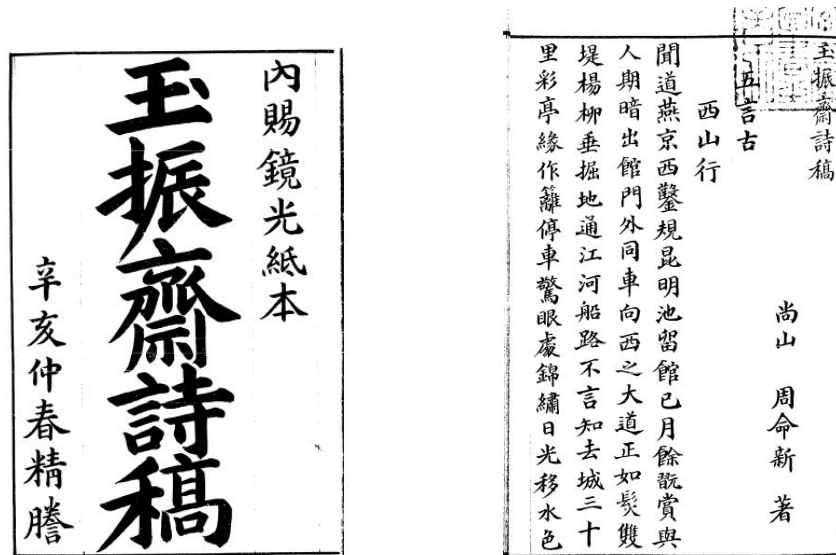
25) 『경악전서』의 경우 자신이 만든 처방을 신방이라 부르고 기존 처방을 구방으로 분류한다.

26) 『경악전서 · 신방팔진』에 옥녀전(玉女煎)과 옥미환(玉美丸)이란 처방이 수록되었으나 주된 치료 영역과 처방 구성이 다르다.

27) 유준상, “의문보감을 통해 살펴본 주명신의 의학사상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3), 9. 『열하일기』에는 주명신이 주부(主簿) 출신인 점만 확인될 뿐이지만, 『옥진재시고(玉振齋詩稿)』(1791년, 전3책)에 사행 때 지은 시(詩)가 남아있어 의학 관료인 주명신과 동일인임이 확인된다. 시고 서두에 그의 관향인 상산(商山 상주)이 나오며, 시 내용 중에도 상관사(上判事) 조학동(趙學東)에게 약(藥)을 주는 일이 나온다. 책 이미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접속일 2020.7.15.]

28) 김동석, “장서각 소장 옥진재시고 연구,” 『장서각』 제32집(2014), 262-281.

었고 당해 10월에 출발하였다.³⁰⁾ 즉 『의문보감』은 자서(自序)를 보면 ‘계춘(季春 음력3월)’에 완성되었으므로 1784년 사행은 저술 이후이다.



<사진 1> 『옥진재시고』(1791년)의 표제지와 본문 첫 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이상을 고려할 때 주명신의 『의문보감』에 수록된 『경악전서』는 1780년 중국 사행에서 저자가 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의문보감』은 활자화되지 못하고 수고(手稿)로만 전하다 1918년 전의(典醫) 이명석(李命錫)에 의해 교정되어 간행되기 때문에 집필 당시에 널리 장개빈의 사상을 전파했다는 불확실하다. 또한 『의문보감』은 장개빈의 의론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고 처방과 의안만을 수록했다는 한계가 있다.³¹⁾

2.2 정조 말기의 수용 사례

『마과회통(麻科會通)』은 정약용(丁若鏞)의 서신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1796년(정조 20) 3월 무렵에 이미 집필을 위한 자료수집에 있었고 1797년 겨울 초고를 저술하고 1798년 10월 교정 원고가

29) 『열하일기·금료소초서(金蓼小抄序)』를 보면 박지원이 1780년 연경(燕京)에서 경험방서를 구하려 한 일화가 나온다. 박지원과 일행이었던 주명신도 의학서를 구하려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0) 김동석, “장서각 소장 옥진재시고 연구,” 『장서각』 제32집(2014), 269-270.

31) 이만영(李晩永)에 의해 1789년(정조 13)에 편찬된 물명류 문헌인 『재물보(才物譜)』에도 『경악전서』가 인용되었다. 이는 『의문보감』과 더불어 1790년 대 이전에 『경악전서』를 활용한 사례가 된다. 박훈평, “물명류 문헌에 수록된 의약 어휘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33권 2호(2020b), 37-39.

완성되었다.³²⁾ 『마과회통』은 『경악전서』 권42-45의 「두진진(痘疹證)」을 인용하여 52개 처방을 수록하였는데³³⁾ 이는 『고금도서집성』에 없는 내용이다. 선행연구는 장개빈의 마진학이 『마과회통』에서 네 가지 면에서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 첫째 마진의 정명(正名) 관련하여 마(麻)를 진(疹)에서 구분한다는 점, 둘째 온보(溫補)하는 처방을 쓸 필요도 있다는 점, 셋째 정교한 변증시치(辨證施治), 마지막으로 충론(蟲論)의 이론적 근거이다.³⁴⁾ 『마과회통』은 1802년 홍석주(洪奭周)에 의해 『마방통휘(麻方統彙)』로 이름을 바꾸어 간행되었고 이외에도 필사본으로 널리 보급되어 장개빈의 사상을 전파하였다.

『제중신편(濟衆新編)』은 정조의 명으로 내의원의 수의 강명길(康命吉)이 1799년에 간행한 의서이다.³⁵⁾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악전서』는 『제중신편』에 인용된 21종 서적 중의 하나이다. 두 차례 인용되었는데 권5 「해독(解毒)」의 「해염로독(解鹽鹵毒)」³⁶⁾은 『경악전서』 권60 「고방팔진(古方八鎭)」의 내용을 인용하였고, 「약성가(藥性歌)」의 「연초(烟草)」는 『경악전서』 권48 「본초정(本草正)」 상의 「습초부(濕草部)」를 인용하였다.³⁷⁾ 이들 내용은 『도서집성』에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단행본 『경악전서』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이다. 『제중신편』은 『동의보감』을 기본으로 하고 『의학입문』으로 보충하여 펴낸 책이므로³⁸⁾ 금원사대가에 대해 비판적인 장개빈의 의론 부분을 인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3 『경악전서』 수용의 의의

한편 두창(천연두)과 마진(홍역)으로 대표되는 전염병 치료학이 청에서 조선으로 전파되는 시기와 『경악전서』의 수용 시기가 맞물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 류상(柳常)의 『류하신방(柳下新方)』에서 마지기(麻之騏)의 『진과찬요(疹科纂要)』를 최초로 인용하므로³⁹⁾ 18세기 초에 중국 홍역전문서가 조선에 유입된 증거가 있다. 하지만 『진역방』(1786년), 『마과회통』(1798년), 여러 중국 두창 관련 의서의 조선에서의 간행은 정조와 순조 기간에 집중되어 있으며⁴⁰⁾ 이 시기가 중국 전염병학이 활발하게 조선에 수용된 시기였다. 이를 단순히 사행을 통한 청나라와의 교류 확대로 인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견고했던 『동의보감』 체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의학 이론에 대한 수요가 생겨날 계기가 마련되었다. 여러 전염병 전문서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장개빈의 사상과

32) 조성을,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 (파주: 지식산업사, 2016) 21.

33) 하기태, “경악전서가 조선후기 주의를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1), 10-11.

34) 서봉덕, “마과회통의 의과학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74.

35) 1737.3.20.-1800.7.13.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a), 11.

36) 염로(鹽鹵)란 간수를 말한다. 간수를 마시면 중독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37) 하기태, “경악전서가 조선후기 주의를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1), 9.; 지창영, “제중신편의 의과학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3), 10-12.; 이정화, “제중신편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보』 제35집(2010), 75-76. ‘연초’에 관한 내용은 따로 인용 표시가 없으므로 다른 문헌을 통해 재인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38) 이정화, “제중신편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보』 제35집(2010), 81.

39)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 민속원, 2018b), 17-21.

40)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 민속원, 2018b), 42, 57-61.

저술이 알려졌을 것이다.⁴¹⁾ 또한 전염병의 창궐은 기존 의학 체계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 1807년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적량(翟良)의 『두과회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기존의 『두창경험방』에 익숙한 임상가가 활용하기 쉬운 편제”라 평하였다.⁴²⁾ 이는 새롭게 외국의 의학을 받아들이면서도 기존 의학 체계와의 적합성을 추구한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악전서』의 의론(醫論)은 『동의보감』에 익숙한 조선 의가들이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정조대의 인용 문헌들은 『경악전서』를 당시의 주류의학인 『동의보감』 의학 체제를 보완하는 정도로만 장개빈의 의학을 수용하였다. 그 결과 의론을 제외한 일부 처방과 전염병 관련 이론들만이 의학 문헌에 반영되었다.

선행연구에서 17세기 중반 영조가 행한 보양법의 근거를 『경악전서』로 본 주장은⁴³⁾ 사실관계를 떠나 보양법을 명대 온보파의 것만으로 본 점에서 오류이다. 일본에서 『상한론』을 중시하는 고방파(古方派)가 득세하기 이전인 18세기 초까지 카즈키 고잔(香月牛山) 등의 후세파(後世派)가 성행하였는데,⁴⁴⁾ 이 시기 에도의 시중은 굉장한 인삼 붐을 맞고 있었으며 치료용만이 아니라 투기 대상이 될 정도로 민간에서 다용하였다.⁴⁵⁾ 18세기 중반까지 일본에서 성행했던 후세파(後世派)는 금원사대가 이론 중심의 학파로 조선의 『동의보감』 체계와 의학적 사유를 공유하는 의학 유파이다. 영조가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으로 바꾸어 부를 만큼 애용하였던⁴⁶⁾ 이중탕(理中湯)은 기존 중국 처방이 『동의보감』에 채수록된 것으로 인삼(人蔘), 백출(白朮), 건강(乾薑), 감초(甘草)로 구성되어 있다. 즉 18세기 초중반 한일 양국의 인삼 다용(多用)은 의학 이론으로도 경악파의 사상과는 관련이 없다. 온보파의 보양법이라면 인삼이 아닌 부자나 육계 등의 약물을 다용했을 것이다.⁴⁷⁾ 18세기 전반 일본에서의 인삼 붐은 당시의 동아시아 무역 상황과 관련이 있다. 조선의 인삼 무역은 병자호란을 맞아 일대 변환을 맞았다. 청이 인삼을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자 조선은 일본과의 인삼 교역을 금지하던 이전의 입장을 바꾸었다. 더구나 청은 만주 지역에서 인삼을 자체 생산하였기에, 중국과 밀거래를 하더라도 일본과의 인삼 무역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거래였다.⁴⁸⁾ 17세기 중반 이후 일본은 막대한 양의 은(銀)을 조선에 제공하면서 인삼을 수입하였고, 18세기 초반에는 인삼을 자체 재배하기 위해 종자 입수와 재배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다.⁴⁹⁾

41) 『경악전서』는 ‘두진전(痘疹詮)’을 따로 두어 두창과 홍역 관련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장개빈의 다른 저술인 『유경』의 도입이 19세기 중반 이후인 것도 장개빈이 전염병 치료와 관련되어 처음 조선의 의가들에게 소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2) 박훈평, “조선 간행 두과회편 저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77집(2019a), 224-225.

43) 김정선, 황상익, “조선 후기 내의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학 경향,” 『의사학』 제16권 2호(2007), 157.

44) 후지가와 유우 저, 박경, 이상권 역, 『일본의학사』 (서울: 법인문화사, 2006), 407.

45) 다시로 가즈이 저, 정성일 역, 『왜관』 (서울: 논형, 2005), 146-147.

46) “理中湯可謂當劑, 改之曰理中建功湯可也” 『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12월 21일 (계유) 기사. 본고에서 『승정원일기』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 <<https://sjw.history.go.kr>>. [접속일 2020.7.15.]

47)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개정증보 한중의학사개설』 (대전: 주민출판사, 2017), 327.

48) 양정필, “17-18세기 전반 인삼무역의 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 『탐라문화』 제55집(2017), 120-136.

49)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서울: 신서원, 2000), 235-250. 이후 18세기 중후반에는 조선과 일본 간 인삼

그런데 금원사대가 위주의 치료법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은 유가언(喻嘉言)의 영향을 받은 고방파를,⁵⁰⁾ 조선은 장개빈의 사상을 수용하려 했던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한론』이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조선 중기 『동의보감』 이후로 『상한론』의 독립적인 발달이 더디었던 흐름과 관련된다.⁵¹⁾ 다만 일본에서는 고방파와 후세파의 의학 논쟁이 격렬하게 이루어지면서 근대에까지 계속되는 반면, 조선은 『동의보감』 학파 위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졌다. 장개빈의 사상은 금원사대가의 일부 이론에 대해 비판적이긴 하나 큰 틀에서는 이론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는 반면에, 일본 고방파는 “후세 의가의 근거 없는 설을 배척하고 임상에서 직접 시험한 것만을 중시”⁵²⁾하였다. 즉 일본보다는 조선의 의학계가 더 안정적인 미래 대안을 추구한 셈이다.

3. 『경악전서』 수용의 심화

3.1 지식인의 교양서

1799-1800년에 편찬된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에도 『경악전서』에 대한 인용이 있다. 정조가 『경악전서』에 대해 평하기를 “집대성한 책으로, 진찰(診察)과 경험(經驗)의 방(方)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⁵³⁾라 하였다. 국왕이 사대부가 읽을 만한 의서로 당시 의과 과목이었던 『황제내경소문』, 『의학입문』, 『본초』 등과 함께 거론한 것이다.

순조 초기 『경악전서』는 널리 보급되었는데, 여러 문헌의 인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석주(洪奭周 1774-1842)가 1810년(순조 10)에 저술한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에 그가 읽은 의가(醫家)류 책으로 『경악전서』가 언급된다.⁵⁴⁾ 전업 의가가 아닌 지식인도⁵⁵⁾ 교양서로 구해 읽을 정도로 당대에 널리 보급된 것이다. 둘째, 정약용의 시 ‘소장공 동파 시에 화답하다[和蘇長公東坡]’에도 “채소부에 빠뜨린

무역이 쇠퇴하게 되는데, 조선에서는 인삼이 일본에서는 은이 귀해진 까닭이었다. 설혜심, 『인삼의 세계사』 (서울: 휴머니스트, 2020), 142.

50) 후지가와 유우 저, 박경, 이상권 역, 『일본의학사』 (서울: 법인문화사, 2006), 340-341.

51) 박훈평, “조선전기 상한 관련 문헌의 도입과 활용 연구,” 『의사학』 제28권 3호(2019b), 673-674. 조선이 중국의학의 최신 학술 흐름을 수용해야 더 선진적임은 당연히 아니다.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약재의 차이가 있으며 철학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선호하는 술기와 이론도 다르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 완성된 의학 체계가 그 시절 가장 적합하였다고 해서 그 이후 시기에도 적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동의보감』의 완성은 동아시아 의학사에서 빛나는 업적이지만 17세기 초와 같은 의학 체제 적합성을 20세기까지 유지하진 못했다. 이는 현대의 한의학사에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52) 후지가와 유우 저, 박경, 이상권 역, 『일본의학사』 (서울: 법인문화사, 2006), 341.

53) 권162 『일득록(日得錄)』, “張介賓景岳全書. 即集成文字. 診察經驗之方. 不外於此.”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7.15.]

54) 홍석주 저, 리상용 역주, 『역주 홍씨독서록』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229-230.

55) 당시 홍석주는 정3품 도승지였다. 『승정원일기』, 순조 10년(1810) 3월 8일 (임술) 기사.

게 많은[榮部多脫落], 장경악 그는 웃기는 사람이야[我笑張景岳]⁵⁶⁾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러한 시의 내용은 정약용의 시를 읽는 이들도 장경악을 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셋째, 정약용의 『의령(醫零)』은 1822년 이전에 저술되었는데 『경악전서 권1 전총록 상』과 순서와 항목 이름 등에서 비슷한 체제를 가지면서 인용되었다.⁵⁷⁾ 정약용이 전염병에 국한하여 연구했던 장개빈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기존 의학 이론에 대한 비판의 한 기준으로 활용하였다.⁵⁸⁾ 넷째, 1823년 경 편찬된 한치윤(韓致堧)의 『해동역사(海東譯史) 권26 물산지(物產志)』에서 연초에 관해 “오직 경악전서에서만 비로소 그 성질과 맛에 대해 말하였다.”⁵⁹⁾하였다. 다섯째, 이규경(李圭景)이 헌종대(1850년 경)에 저술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인사편(人事篇)·기예류(技藝類)』 『아편연변증설(鴉片煙辨證說)』에서도 연초(煙草)에 대한 설명⁶⁰⁾에서 『경악전서 권48·본초정 상』의 해당 내용을 인용하였고, 이외에도 『침범구훈변증설(鍼砭灸熏辨證說)』과 『제생삼묘편증설(濟生三妙辨證說)』에서도 인용하였다.

정조 연간 『경악전서』의 수용이 제한적이긴 했으나 여러 의학 문헌에 인용되면서 이미 그 의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였고, 이후 시기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독서층의 확대로 지식인층에게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한 결과 1876년(고종 13) 일본 수신사행을 다녀온 김기수의 『일동기유(日東記遊)』 권4에서 일본의사를 지칭하면서 “蓋其人精於景岳之術”⁶¹⁾이라 하여 ‘경악’이 ‘신농(神農)’처럼 의학을 대표하는 말처럼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3.2 황도연(黃道淵) 및 기타

황도연은 현종·철종·고종 3대에 걸쳐 의약동참의를 지내고 정3품 통정대부에 오른 의학 관료이다.⁶²⁾ 그는 1850년(철종 1) 9월 고부청시검승습주청사(告訃請諡兼承襲奏請使)의 원역(員役)으로 중국에 갔다가 『경악전서』를 구입하였다.⁶³⁾ 다만 황도연이 이때 처음 『경악전서』를 접하게 되었던가는 불분명하다.

황도연의 저작 중에 장경악을 최초로 인용한 책은 1867년 완성되어 1868년(고종 5) 목판으로 간행된 『의종손익(醫宗損益)』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종손익』은 『동의보감』의 편제를 거의 그대로

56)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권5·시』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7.15.]

57) 서봉덕, “의령으로 본 정약용의 의학사상,”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5, 9.

58) 정약용이 장개빈의 치밀한 논리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 송고주의나 음양오행론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평하였다. 서봉덕, “의령으로 본 정약용의 의학사상,”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49.

59)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7.15.]

60) “吸時須開喉. 長吸嚥下. 令其直達下焦. 其氣上行則能溫心肺. 下行則能溫肝脾腎. 服後能使通身溫暖微汗. 元陽陡壯. 性屬純陽. 善行善散. 煙氣易散. 而人氣隨復. 陽性留中. 旋亦生氣. 此其耗中有補. 頃刻取效之. 神劑也.” 『오주연문장전산고』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7.15.]

61)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7.15.]

62) 1808.3.28.-1884.8.17. 박훈평, 『일제강점기 의생종목록 1』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602-603.

63) 황도순 저, 구현희 역, 『국역 연행일기』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83.

따르면서 주된 인용서인 『동의보감』(194회) 다음으로 『제중신편』(376회)과 『경악전서』(193회)를 많이 인용하였다. 『제중신편』의 인용 횟수가 『경악전서』에 비해 더 많긴 하지만, 후자의 경우 의론(醫論) 인용이 많아 전자에 비해 분량이 더 많으며 여러 문(門)에 걸쳐 고르게 인용되었고,⁶⁴⁾ 『경악전서·신방팔진(新方八陣)』 189개 처방 중에 113개(전체의 약 60%)를 인용하여 조선 후기 의서 중에서 가장 많은 인용 비율이다.⁶⁵⁾ 『의종손익』을 평가기를 “『동의보감』에서 시작하여 『제중신편』으로 이어지는 동의(東醫)의 전통 하에 팔강변증(八綱辨證)⁶⁶⁾ 등 『경악전서』의 내용을 수용하고 자신의 임상경험을 결합하였다”⁶⁷⁾고 하였다. 『의종손익』 저술 이전에 상당 기간 장개빈의 이론을 자신의 임상과 결부시키는 노력을 시도한 셈이다. 1884년의 『방약합편(方藥合編)』에서도 『동의보감』의 인용처방을 제외하면 『경악전서·신방팔진』의 처방을 거의 수록하는 등 30개의 처방을 인용하여 전체 처방의 약 6.4%를 차지하는데 인용 출처로 보아 『의종손익』을 재인용하였다.⁶⁸⁾

황도연의 저술에 있어 또 주목할 점은 『의종손익 권1·인용제서(引用諸書)』에 ‘장씨유경(張氏類經)’이 나온다는 점이다.⁶⁹⁾ 『유경』은 장개빈이 『황제내경소문』을 재편하고 주를 단 주석서로서, 현재 『의종손익』은 『유경』을 인용한 조선시대 최초의 의서이다.⁷⁰⁾

19세기 필사본 의서들의 상당수는 저술 시기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다. 그러나 이들 의서의 존재는 당시에 장개빈의 의학사상이 널리 보급되었다는 증거이다. 『경악전서』를 인용한 필사본 의서는 다음 <표 3>과 같다.⁷¹⁾ 17종 가운데 전체를 대상으로 필사한 경우는 『경악방초(景岳方抄)』와 『의리대중(醫理大宗)』에 불과하며, 『경악전서 권50·신방팔진(新方八陣)』만을 필사한 경우가 8종으로 가장 많다. 즉 장개빈의 의론보다 ‘신방팔진’ 위주로 활용하였다.⁷²⁾ 또한 『경악전서』 일부를 다른 의서와 함께 인용한 사례가 『홍진신방(紅疹新方)』과 금리산인(錦里散人)에 의해 저술된 『의회(醫集)』(1871년)⁷³⁾에 불과하여, 『경악전서』를 일부 제한된 의가 학파에서 계승 활용했을 가능성도

64) 이진철, “의종손익을 통해 본 황도연의 의학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27-43.

65) 하기태, “경악전서가 조선후기 주요의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1), 12-13.

66) 음양(陰陽)을 중심으로 표리(表裏)·한열(寒熱)·허실(虛實)을 강령삼아 질병을 변증하는 방법이다.

67) 이진철, “의종손익을 통해 본 황도연의 의학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13, 89.

68) 하기태, “경악전서가 조선후기 주요의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1), 13.

69) 『의종손익』 원문과 번역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과전DB <<https://medicclassics.kr>>. [접속일 2020.7.15.]

70) 권2 「몽(夢)」과 권12 「소아 보호법(保護法)」의 두 곳에서 인용하였다. 『의종손익 권2·몽』 “惟聖御物以心, 攝心以性, 則心同造化, 五行安得而役之, 故至人無夢也.” 『의종손익 권12·소아 보호법』 “聖人避風如避箭, 則風寒之爲害也不少. 彼嬰兒以未成之血氣, 嫩薄之肌膚, 較之大人, 相去百倍, 顧可令其帶寒耶? 余見新產之兒, 多生驚風抽搐等病, 蓋其素處腹中, 裹護最密, 及胞胎初脫, 極易感邪, 而收生者遲慢不愼, 則風寒襲之. 多致不救者此也. 及其稍長, 每多發熱, 輕則鼻塞咳嗽, 重則爲傷寒, 幼科不識, 一槩呼爲變蒸. 誤藥致斃者此也. 醫家不能察本, 但知見熱攻熱, 嬰兒不能言, 病家不能辨, 徒付之命, 誠可嘆也. 又謂小兒爲純陽之體, 故多宜清涼之治者, 此說尤爲悞人.”

71) 『한의학 고서목록』으로 1차 조사를 한 뒤(이정현, 『한의학 고서목록』(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37-40, 340, 426, 475, 581, 607) 소장처의 기관DB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서지를 추가 조사하였다. 필사본의 특성상 저술시기 구분이 어려우므로 일부는 일제강점기 때의 자료일 가능성도 있다. 비교는 『경악전서』의 일부 내용만 인용한 경우 작성하였다.

72) 당시 『경악전서』 전질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근거일 수도 있다.

73) 『의회』에서 『경악전서』의 인용은 권2에서 소아다식잡과관격(小兒多食雜果關格)의 치료법 등에 대한 설명과 소아

있다. 따라서 1868년 간행된 『의종손익』 이전에 장개빈의 의학이 조선의학에 미친 영향은 마진(홍역) 치료학에서만 잘 활용되었을 뿐 다른 분과의학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다.

<표 3> 『경악전서』를 인용한 기관 소장 의학 필사본 일람

순번	책이름	권책	소장처(청구기호)	비고
①	『경악방초(景岳方抄)』	불분권 20책	고려대(신암 C6 A45)	
②	『경악요평진병편(景岳要評診病篇)』	불분권 1책	산청한의학박물관	
③	『경악전서(景岳典書)』	불분권 1책	경기대	
④	『경악전서 덕집(德集)』(『신방팔략(新方八略)』)	불분권 1책	경북대	
⑤	『경악전서 권54-55』	2권 1책	성암고서박물관	
⑥	『경악전서 덕집(德集)』	2권 1책	경상대(C7-장96ㄱ)	
⑦	『경악전서략초(景岳全書略抄)』	불분권 1책	부산대(3-5-43)	
⑧	『신방팔진(新方八鑑)』	불분권 1책	산청한의학박물관	
⑨	『신방팔진』	불분권 1책	고려대(대학원C6-A144A)	
⑩	『신방팔진』	불분권 1책	국민대	
⑪	『신방팔략(新方八略)』	불분권 1책	산청한의학박물관	
⑫	『의리대중(醫理大宗)』	불분권 10책	장서각(K3-362)	
⑬	『의취(醫叢)』	4권 5책	서울대 약학대(私藏)	일부 처방
⑭	『전충록(傳忠錄)』	불분권 1책	고려대(C6-A121)	
⑮	『팔진신방(八陳新方)』	불분권 1책	산청한의학박물관	
⑯	『팔진방(八陣方)』	불분권 2책	장서각(K3-382)	
⑰	『홍진신방(紅疹新方)』	불분권 2책	장서각(K3-387)	治紅疹方

4. 『경악전서』의 전면적 보급

4.1 『동의보감』 해석의 틀

『의감중마(醫鑑重磨)』는 『동의보감』을 기본으로 하여 석곡(石谷) 이규준(李奎駿)이 1908년 저술한 의서이다. 선행연구에서 석곡의 의학사상은 장개빈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의감중마』 「팔제팔법가(八劑八法歌)」는 경악팔진(景岳八鑑)의 방식과 유사하고, 처방집인 「국방류선(局方類選)」은 장개빈의 신방(新方)을 인용한 것이 그 근거였다. 「국방류선」의 온장환(溫臟丸) 등은 「방약합편」이 원래의 출처를 『동의보감』으로 잘못 인용한 오류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를 통해 장개빈의 처방은 단순히 「방약합편」의 재인용으로 확인되었다.⁷⁴⁾ 장개빈이 저술한 『유경(類經)』이 『의감중마』의 인용서라는 사실도 지적되었다.⁷⁵⁾ 『의감중마 권1 · 보감소인역대의방(寶鑑

생리(生理)를 인용하는 2곳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DB <<https://medicclassics.kr>>. [접속일 2020.7.15.]

74) 하기태, “경악전서가 조선 후기 주요 의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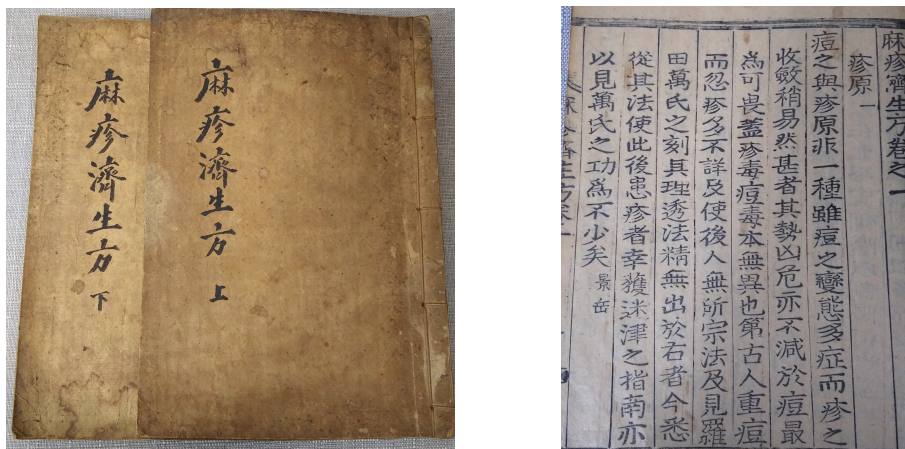
75) 오재근, “조선 말기에 등장한 새로운 전통 의학 이론: 유의 이규준이 주창한 부양론의 특징과 그 의미,” 『의료사회

所引歷代醫方)에 『경악전서』가 나온다.⁷⁶⁾ 『동의보감』에는 『유경』이 인용되지 않으므로, 저자 본인이 추가로 참조한 책이다. 선행연구에서 장개빈과 이규준의 차이에 대하여 전자는 명문(命門)을 두 신장(腎臟) 사이로 보고 상화(相火)를 치료하기 위해 명문의 진양(眞陽)과 진음(眞陰)을 보호하려 했고, 후자는 명문을 심포락(心包絡)으로 보고 상화를 치료하기 위해 양기(陽氣)를 보충하려 했다고 보았다.⁷⁷⁾

『의방신감』은 일제강점기 영년의생인 한병련(韓秉璉)이 1913년 저술하여 아들 한석원(韓錫元)에 의해 1915년에 간행된 의서이다. 서문에 따르면 『동의보감』을 요약하고 자신의 경험을 추가하여 만들었다.⁷⁸⁾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방신감』의 인용문헌 목록인 ‘역대의방서목’에는 『장씨유경』과 『경악전서』가 나오며 한병련은 군화(君火) 상화론에 있어 장개빈을 따른다.⁷⁹⁾

『의감중마』와 『의방신감』은 20세기 초의 의가들이 『동의보감』을 해석할 때에 장개빈의 의학사상이 하나의 틀을 제공했다는 사례이다. 이들 의가는 『유경』과 『경악전서』를 함께 참조하는 공통점도 있으며, 이전의 해암이 행했던 『동의보감』 활용 방향과 같은 맥락이다.

4.2 『경악전서』 보급의 확대



<사진 2> 『마진제생방』의 표지와 본문 첫 면 (개인 소장)

사연구』 제1권(2018), 52-58.

76) 『의감중마』 원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과전DB <<https://medicclassics.kr>>. [접속일 2020.7.15.]

77) 오재근, “조선 말기에 등장한 새로운 전통 의학 이론: 유의 이규준이 주창한 부양론의 특징과 그 의미,” 『의료사회사연구』 제1권(2018), 53-55.

78) 1859.4.27.-1936.12.1. 박훈평, 『일제강점기 의생총목록 1』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455. ; 김단희, “한병련의 의방신감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6.

79) 김단희, “한병련의 의방신감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9-11. 중풍에 관한 병증에서 인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논자는 보양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는 장개빈의 치법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진제생방(麻疹濟生方)』은 영년의생인 박도억(朴度億)이 1933년에 간행한 마진 전문의서이다.⁸⁰⁾ 『마진제생방』의 본문 목차는 『경악전서 권42·마진전(麻疹全)』과 매우 유사하여 41개 항목 중에 25개 항목이 이에 해당하는데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마진제생방』과 『경악전서·마진전』 본문 목차 비교

마진제생방 권1		경악전서 권42		마진제생방 권2		경악전서 권42					
1	진원(疹 ⁸¹)原)	1	술원(述原)	26	진이질(痢疾)	없음					
2	진명의(名義)	2	명의(名義)	27	진혈한(血汗)	20	진한늑(汗衄)				
3	진여상한변(與傷寒辨)	없음		28	진순구창(盾口瘡)	23	진순구창				
4	진증(症)	5	진증	29	진인후통(疹咽喉 ⁸²)痛)	22	진인통(咽痛)				
5	진맥(脈)	4	진맥	30	진실음(失音)	없음					
6	진기(期)	6	진기	31	진복통(腹痛)	24	진복통				
7	진역순(逆順)	3	역순	32	진회충(蛔蟲)	없음					
8	진경중(輕重)	11	진길흉(吉凶)	33	진섬망광란(譫妄狂亂)	21	진조망광란(躁妄狂亂)				
9	진금기(禁忌)	13	진금기	34	진후옹저(後 ⁸³)癰疽)	없음					
10	진치대법(治大法)	12	진총치법(總治法)	35	진재열(再熱)	없음					
11	진예방(豫防)	없음		36	진후제증(後諸症)	25	진후제증				
12	진초열(初熱)	7	마진초열	37	잉부마진(孕婦麻疹)	없음					
13	치당찰시령(治當察時令)	없음		38	보유(補遺)						
14	진형색(形色)	9	진형색	39	고금치험(古今治驗)						
15	진출몰(出沒)	8	진출몰	40	부 소진(附 瘡疹)						
16	진출열불량(出熱不良)	14	진발열(發熱) ⁸⁴⁾	41	개두진(蓋痘疹)						
17	진체(涕)	10	진체	없음		26	부마진(附麻疹)				
18	진음식(飲食)	17	진음식			27	수두(水痘)				
19	진음수(飲水)	18	진음수			28	마진논열방(論列方)				
20	진번갈(煩渴)	19	진갈(渴)			비용방(備用方)					
21	진해수(咳嗽)	15	진천수(喘嗽)								
22	진천급(喘急)	없음									
23	진구토(嘔吐)										
24	진설사(泄瀉)										
25	진토사병발(吐瀉并發)	16	진토사(吐瀉)								

그런데 인용된 『경악전서』 내용은 『권42·마진전』이 대부분이다. 다만 「진초열(疹初熱)」처럼

80) 1878.11.19. - 1935.5.15. 자신의 진료소인 경상도 하동의 만화당약방에서 2권 2책의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박훈평, 『일제강점기 의생총목록 1』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169. ;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 민속원, 2018b), 92.

81) 원문에는 다른 항목에도 모두 “疹”이 있으나 반복되므로 제외하였다.

82) 목차에는 ‘喉’가 있으나 본문에는 빠져있다.

83) 목차에는 ‘後’가 있으나 본문에는 빠져있다.

84) 항목명은 유사하나 내용은 다르다.

『경악전서 권63·두진전고방(痘疹銓古方)』에서 처방과 그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는 사례도 있다. 전체 41개 항목 중에 『경악전서』 인용이 있는 경우는 27개 항목에 달하는데 다음 <표 5>와 같다. 이 책은 조선후기 경악과의 전통을 계승하는 저작으로 볼 수 있다. 『동의보감』과 『이몽수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용 문헌이 명청대 중국의서란 점도 특징적이다.

<표 5> 『마진제생방』의 내용의 인용문헌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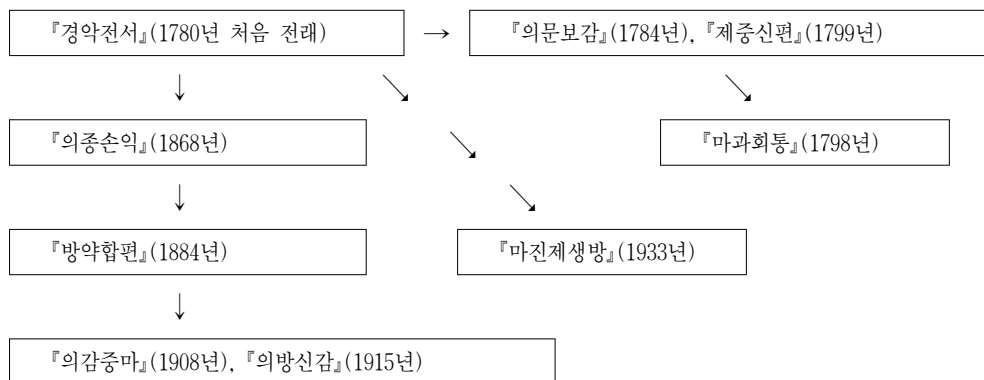
마진제생방 권1		인용문헌의 출처	마진제생방 권2		인용문헌의 출처
1	진원	경악, 보원	26	진이질	금감, 준승, 경악 ⁸⁵⁾
2	진명의	만씨, 금감	27	진혈한	만씨, 금감, 경악
3	진여상한변	협방	28	진순구창	[경악], 준승, 만씨, 변증
4	진증	만씨, 경악	29	진인후통	만씨, 의안, 금감, 준승
5	진맥	만씨, 경악	30	진실음	만씨, 금감
6	진기	만씨, 경악	31	진복통	[경악], 금감
7	진역순	만씨	32	진회충	만씨, 몽수, 지남, 자협
8	진경증	[미상], [경악] ⁸⁶⁾	33	진섬망광란	만씨, 의종(醫宗)
9	진금기	만씨, 준승, 협방	34	진후옹저	금감
10	진치대법	만씨, 금감, 경악	35	진재열	금감, 준승
11	진예방	한씨(韓氏)	36	진후제증	경악, 보원, 준승, 명의류합(名醫類合)
12	진초열	준승, 보감, 류안, 만씨, 경악, 금감, 협방, 석실, 변증	37	잉부마진	의안, 준승, 왕맹영(王孟英)
13	진치당찰시령	의안(醫案)	38	보유	협방, 준승, 의안, 왕씨(王氏), 입문, 단심(丹心), 섭씨(葉氏), 광필기(廣筆記), 양씨(楊氏), 의감
14	진형색	만씨, 준승, 보원, 경악, 육과	39	고금치협	[미상], 왕씨
15	진출물	만氏, 금감, 육과, 준승, 경악	40	부소진	의종
16	진출열불량	금감, 의안, 육과	41	개두진	준승
17	진체	만씨	부	마진	없음
18	진음식	만씨		수두	
19	진음수	[경악], 변증			
20	진변갈	만씨			
21	진해수	만씨, 금감, 만씨, 준승, 의종, 지남(指南), 육과, 의안, 금감			
22	진천급	준승, 지남, 만씨, 류안			
23	진구토	금감, 준승			
24	진설사	만씨, 금감			
25	진토사병발	만씨			

85) 25조 『진토사병발(疹吐瀉并發)』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86) 본 표의 인용출처에서 '[]'는 인용출처가 없으나 인용 내용이 있는 경우이다.

인용 문헌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서 모든 인용 문헌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고 일부만 가능하다.⁸⁷⁾ ‘만씨(萬氏)’로 출처표시로 된 경우 만전(萬全)의 『두진심법』 내용을 거의 대부분 『경악전서』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30조 「진실음(疹失音)」과 32조 「진회충(疹蛔蟲)」의 경우처럼 『경악전서』에는 없고 『두진심법』에만 있는 내용도 있다. 『마진제생방』까지 『경악전서』의 영향을 받은 조선 후기 의학서의 관계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 <표 6>과 같다.⁸⁸⁾

<표 6> 『경악전서』의 영향을 받은 조선 후기 의학서의 관계



일제강점기 장개빈 연구에 있어 주목할 의가는 영년의생인 모경(慕景) 홍종철(洪鍾哲)이다.⁸⁹⁾ 그는 ‘경악을 사모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호를 삼았을 만큼 장개빈의 의학 사상에 심취하였다. 또한 『팔진신편(八陳新編)』 상하권을 저술하여 장개빈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⁹⁰⁾ 성주봉(成周鳳)은 『한방의약(韓方醫藥)』이란 잡지의 편집 겸 발행인으로 활동하였는데 여기에 기고한 ‘경악전서에 대한 연석(演釋)’이란 글을 통하여 “금원사대가 위주의 처방으로 된 『동의보감』의 약점을 『경악전서』의 온보론을 도입하여 극복할 것”을 제시하였다.⁹¹⁾ 그는 장개빈과 함께 『상한론』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⁹²⁾ 이는 한일의 의학계가 금원사대가 위주의 기존 처방에 대응했던 2가지 방식을 아우르

87) 다만 ‘경악(景岳)’은 『경악전서], ‘보원(保元)’은 공정현의 『수세보원』, ‘금감(金監)’은 오겸의 『의종금감』, ‘준승(準繩)’과 ‘육과(六科)’는 왕궁당의 『육과증치준승』, ‘험방(驗方)’은 『험방신편』, ‘보감(寶鑑)’은 허준의 『동의보감』, ‘유안(類案)’은 강관의 『명의류안』, ‘석실(石室)’은 진사탁의 『석실비록』, ‘변증(辨症)’은 진사탁의 『변증비록』, ‘몽수(夢叟)’는 『이몽수방』, ‘입문(入門)’은 이천의 『의학입문』, 자험(自驗)은 자기 경험으로 추정된다. 다른 인용 책들은 특정하기 어렵다.

88) 이는 텍스트 원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없었다는 점에 거친 도식화이지만 이러한 정량적 분석은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89) 1852.12.7.-1922.12.23. 박훈평, 『일제강점기 의생총목록 1』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476.

90)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과주: 들녘, 2001), 315-316.

91)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과주: 들녘, 2001), 85.

92)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과주: 들녘, 2001), 85.

는 것이라 눈여겨볼 만하다. 봉강(鳳岡) 전광옥(田光玉)은 영년의생으로⁹³⁾ 학술적으로 장개빈의 학설을 제일로 여겼다.⁹⁴⁾ 그런데 이들 의가들은 『경악전서』를 중시하면서도 『동의보감』과 상충되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경악전서』만을 추종하는 유파의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창우(李昌雨)의 『수세비결(壽世秘訣)』은 1929년 5권 1책으로 간행된 의서로 이시진의 『본초강목』을 중심으로 자신의 70여년 경험으로 확인한 단방 위주의 치료 처방 들을 각 병증별로 분류 정리한 의서이다. 『본초강목』은 약재별로 되어서 임상에 활용하기 불편한데 이 책은 병증별로 재구성하여 임상 활용도가 높다. 『경악전서』의 인용은 2곳으로 권1 「혈(血)」과 권2 「이롱(耳聾)」이다.⁹⁵⁾ 즉 『경악전서』가 민간에 보급되어 단방서에서도 활용되었다.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이왕실에서 典醫長을 지낸 徐炳孝가 순종에게 가장 다용한 처방은 난간전(緩肝煎)이다.⁹⁶⁾ 그런데 이 처방은 장개빈이 최초로 만든 처방으로 『경악전서』가 원출전이며 황도연의 『의종손익』에 재인용되었다. 난간전의 사례는 『경악전서』의 처방이 왕실에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는 방증이다.

일제강점기에 가서야 『경악전서』를 위주로 저술된 『마진제생방』과 『팔진신편』이 나온다. 그 이전 시기에 『경악전서』의 수용은 전염병 관련된 영역에만 이루어졌고, 다른 분야에서는 간접적이거나 단방(單方) 위주에 불과했다. 18세기 중반 이후 일본의학에서 고방파가 금원사대가 위주의 후세파에 대하여 주도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경악전서』의 전면적인 보급은 20세기 초에야 이루어진 셈이다. 『경악전서』의 첫 수용 이후에 오랫동안 기존 『동의보감』 사유를 대신할 학파를 만들어내진 못했다. 이는 그만큼 『동의보감』 중심의 체제가 견고하고 안정적이었다는 방증이 된다. 또한 중국에서 경악파의 성행에 따른 반작용으로 생겨난 청대 서대춘(徐大春), 진수원(陳修園) 등의 비판적 주장도⁹⁷⁾ 조선에선 다루어질 필요가 없었다. 홍종철은 공인의학강습소 소장, 전습의회 강습소장을 지냈고, 성주봉은 당시 한의 교육자로 이름 높은 이였으며, 전광옥은 동제학교 교사를 지냈다.⁹⁸⁾ 한의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한의학 교육과 보급에 힘썼던 이들이 『경악전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은 조선의학에서 장개빈의 위상을 이전보다 높은 지위로 끌어올리게 하였다.⁹⁹⁾ 이후

93) 1859.11.12.-? 박훈평, 『일제강점기 의생총목록 1』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375.

94)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과주: 들녘, 2001), 453.

95) 『수세비결』의 해제, 원문과 번역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https://medicclassics.kr>>. [접속일 2020.7.15.]. 『수세비결 권1·혈』 “憂愁過度, 服七福飲 歸脾湯. 《張景岳全書》音聲卒不得語, 人乳半合, 美酒半升, 和服.” 『수세비결 권2·이롱』 “耳聾, 用芥菜子, 搗碎, 以人乳調和, 綿裹塞耳. 數易即聞. 又方, 巴豆一粒去心皮, 斑蝥一枚去翅足, 二物合搗膏, 綿裹塞耳. 再易甚效. 又方, 骨碎補削作條, 火炮, 乘熱塞耳效. 又方, 巴豆一粒, 蠟裹, 以針刺孔, 令透塞耳. 又方, 大蒜一瓣, 中剜一孔, 以巴豆一粒去皮膜, 慢火炮極熱, 入蒜內, 用新綿包定塞耳. 三次, 效. 《景岳全書》”

96) 순종의 하루 일상에 대한 일기인 『내각일기』(1926.2.1.-3.31)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난간전은 총 24회 처방되어 전체 처방(117회) 비율에서 20.51%를 차지하여 가장 상용된 처방이다. 박훈평, “서병효 연구에 대한 예비적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33권 3호(2020a), 55-57.

97)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개정증보 한중의학사개설』 (대전: 주민출판사, 2017), 330.

98)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과주: 들녘, 2001), 85, 315, 453.

99) 조선 후기에 중국의 서책은 주로 연행사행의 일원이 북경의 유리창 또는 서반을 통해 구하였다. 그러다가 1882년 조청상민수륙장정을 계기로 인천과 상해를 연결하는 기선이 취항하였고, 1888년 이후에는 상해와 인천간의 정기

장개빈의 의학이 확고하게 한국 전통의학 안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

5. 결 론

장개빈은 주단계의 “양(陽)은 유여(有餘)하고 음(陰)은 부족하다”는 설에 반대하는 온보파의 대표적인 명대 의가였다. 조선 중기 이후 『동의보감』은 의학의 기본 틀로 자리매김하고 기초 이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장개빈의 사상은 단계의학 중심의 『동의보감』과 일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선 후기 이루어진 『경악전서』의 수용 양상에 대하여 여러 문헌을 분석하고 살펴보았다. 본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경악전서』의 조선에서의 최초 수용 시기와 관련하여 1777년과 1780년이 중요하다. 전자는 『고금도서집성』의 전래시기로 『경악전서』는 이에 포함되어 조선에 최초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금도서집성』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람되었다. 1780년은 주명신이 중국으로 사행한 해이며 이때에 단행본 『경악전서』가 조선으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명신은 1784년 자신의 의서 『의문보감』에 장개빈의 처방을 인용하였다.

둘째, 19세기 초 이후 『경악전서』는 지식인의 교양서로 널리 읽혔다. 『홍재전서』, 『홍씨독서록』, 『다산시문집』, 『해동역사』 등의 인용 사례가 그 예이다. 그러면서 점차 ‘경악’이 ‘신농’처럼 의학을 대표하는 어휘로 발전하게 되었다.

셋째, 황도연은 『경악전서』의 조선화에 있어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850년 중국 사행에서 『경악전서』를 매득한 황도연은 1868년 간행한 『의종손익』에서 장개빈의 이론과 신방을 폭넓게 활용하였으며, 또 다른 장개빈의 저작인 『유경』도 인용하였다. 『의종손익』과 1884년 간행한 『방약합편』은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기존에 『경악전서』를 인용한 의서들에 비해 널리 보급되었다. 20세기 초 『의감증마』와 『의방신감』도 황도연이 행한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넷째, 19세기 후반 이후 『경악전서』를 중심으로 의술을 행한 ‘경악파(景岳派)’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필사본 류에서 전염병 관련 저술을 제외하면 『경악전서』 일부를 다른 의서와 함께 인용한 사례는 『의회』가 유일하며, 1933년 간행된 홍역치료서 『마진제생방』의 경우에도 『동의보감』 등의 인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일제강점기 이후 장개빈의 의학은 확고하게 한국 전통 의학 안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

상선 향로가 개설되었다(1894년 폐지). 이때부터 서울의 청계천 일대에는 상해의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포들이 생겼으며 중국의 출판사 중에는 조선에 지점을 내는 경우도 생겼다(이혜정, “상해서장각종서적도첩서목에 나타난 19세기 후반 중국서적 판매와 조선유입,” 『서지학연구』 제80집, 2019, 376). 일제강점기 『경악전서』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중국 의서의 자유로운 유통에도 힘입은 장개빈 사상의 재발견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만 많은 의가 중에서 왜 장개빈이었나 하는 문제는 장개빈의 사상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홍중철, 전광옥, 서병효, 성주봉, 박도억이 그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장개빈의 의학은 18세기 말 처음으로 수용되어진 이후 전염병 관련 내용이 우선 인용되었고, 점차 활용도가 높아져 일제강점기에는 확고한 주류 의학의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고찰에서 주명신이 1780년에 『경악전서』를 가지고 국내에 왔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하였으며, 『유경』의 조선 도입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자료로서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 자료의 발굴로 수용 시기가 명확하게 비정(批正)되기를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파주: 들녘, 2001.
- 김단희. “한병련의 의방신감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 김동석. “장서각 소장 옥진재시고 연구.” 『장서각』 제32집(2014). 260-289.
-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 김성수. “18세기 후반 의학계의 변화상.” 『한국문화』 제65집(2014). 99-134.
- 김정선, 황상익. “조선 후기 내의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학 경향.” 『의사학』 제16권 2호(2007). 151-160.
- 다시로 가즈이 저, 정성일 역. 『왜관』. 서울: 논형, 2005.
- 박수밀. “조선의 중국 서적 유입 양상과 그 의미 - 서반과 유리창의 존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 연구』 제50집(2011). 125-154.
- 박훈평. 『일제강점기 의생총목록 1』.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a.
-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 민속원, 2018b.
- 박훈평. “조선 간행 두과회편 저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77집(2019a), 213-230.
- 박훈평. “조선전기 상한 관련 문헌의 도입과 활용 연구.” 『의사학』 제28권 3호(2019b). 649-684.
- 박훈평. “서병효 연구에 대한 예비적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33권 3호(2020a). 49-61.
- 박훈평. “물명류 문헌에 수록된 의약 어휘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33권 2호(2020b). 37-43.
- 부유섭. “연행록을 통해 본 강옹 연간 중국 서적 유입에 대하여.” 『한문학보』 제22집(2010). 269-306.
- 부유섭. “장동 김문의 서적 유통과 지식 재생산 - 명칭 서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제41집(2013). 131-165.
- 서봉덕. “의령으로 본 정약용의 의학사상.”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 서봉덕. “마과회통의 의사학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 설혜심. 『인삼의 세계사』. 서울: 휴머니스트, 2020.

- 신익철. “연행록을 통해본 18세기 전반 한중 서적교류의 양상.” 『태동고전연구』 제25집(2009). 1-38.
- 양정필. “17-18세기 전반 인삼무역의 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 『탐라문화』 제55집(2017). 107-144.
- 오재근. “조선 말기에 등장한 새로운 전통 의학 이론: 유의 이규준이 주창한 부양론의 특징과 그 의미.” 『의료사회사연구』 제1권(2018). 39-73.
- 유준상. “의문보감을 통해 살펴본 주명신의 의학사상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3.
- 이영원, 윤창열. “주단계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외사학회지』 제5권(1991). 200-251.
- 이정현. 『한의학 고서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 이정화. “제중신평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보』 제35집(2010). 61-82.
- 이지향. “경약전서 부인규가 조선후기 부인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7.
- 이진철. “의종손익을 통해 본 황도연의 의학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 이혜정. “상해서장각중서적도첩서목에 나타난 19세기 후반 중국서적 판매와 조선유입.” 『서지학연구』 제80집(2019). 361-379.
- 이흥식. “연행록 소재 북경 유리창 기록의 변화 추이와 의미 탐색.” 『한문학논집』 제41집(2015). 339-375.
-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서울: 신서원, 2000.
- 조성을.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 과주: 지식산업사, 2016.
- 지창영. “제중신평의 의과학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3.
- 하기태. “경약전서가 조선후기 주요의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1.
- 홍석주 저, 리상용 역주. 『역주 홍씨독서록』.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개정증보 한중의학사개설』. 대전: 주민출판사, 2017.
- 홍한주 저, 김윤조, 진재교 역. 『19세기 견문지식의 축적과 지식의 탄생 - 지수염필 상』. 서울: 소명출판, 2006.
- 황도순 저, 구현희 역. 『국역 연행일기』.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 후지가와 유우 저, 박경, 이상권 역. 『일본의학사』. 서울: 법인문화사, 2006.
- 三木 榮. 『補訂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 思文閣, 1991.
- 劉時覺. 『浙江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8.
- 劉時覺. 『浙江醫人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4.
- 張介賓. 『中醫臨床必讀叢書合訂本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1.
- 陳夢雷. 『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點校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 裘沛然.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전자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http://viewer.nl.go.kr>>. [접속일 2020.7.15.]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 <<https://sjw.history.go.kr>>. [접속일 2020.7.15.]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http://sillok.history.go.kr>>. [접속일 2020.7.15.]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7.1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접속일 2020.7.15.]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DB』 <<https://mediclassics.kr>>. [접속일 2020.7.15.]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u, Yu-seob. 2010. "On the Inflow of Chinese Books into Chosun during the Kangxi-Yongzheng Era Seen in Yeonhaengrok." *Han Mun Hak Bo*, 22: 269-306.
- Bu, Yu-seob. 2013. "Book Circulation and Knowledge Reproduction of Jang-dong Kim Mun." *Journal of Korean Classics*, 41: 131-165.
- Fushichuan you, Translated by Park, Kyung & Lee, Sang-gwon. 2006. *Japanese Medical History*. Seoul: Beobinmunhwasa.
- Ha, Ki-tae. 2001. *Study on the influence of Jingyuequanshu to medical books of late Chosen dynasty*. Master's thesis. Dong 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 Hong, Han-Joo. Translated by Kim, Yoon-jo & Jin, Jae-Kyo. 2006.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d knowledge and the birth of knowledge in the 19th century - Jisuyeompil Vol. 1*. Seoul: Somyong press.
- Hong, Suk-Joo. Translated by Lee, Sang-Yong. 2006. *Translated and annotated 'List of THong's Reading Book'*. Seoul: Aseamunhwasa.
- Hong, Won-Sik, Yoon, Chang-Yeul, & Kim, Yong-Jin. 2017. *Introduction to medical history in Korea and China - Revision Edition*. Daejeon: Juminpress.
- Hwang, Do-sun. Translated by Ku, Hyuh-Hee. 2018. *Translated 'Yeonhaeng-ilgee'*. Daeje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Ji, Chang-Young. 2003. *Medical Historical Study on Jejungshinpyun*. Doctoral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Jo, seong-eul. 2016. *Dasan Jeong Yak-yong in Annals*. Paju: Jisiksanup.
- Jung, Sung-Il. 2000. *Trade with Jap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Seoul: Sinseowon.

- Kim, Dan-Hee. 2009. *Study on EuiBangShinGam by HanByungLyun*.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Dong-suk. 2014. "Traveling to Beijing Written by ZuMongSin in 1780-Through OkJinseSiGo in Jangseogak Archives." *Jangseogak*, 32: 260-289.
- Kim, Doo-jong. 1981. *Korea medical History*. Seoul: Tamgudang.
- Kim, Jung-sun, & Hwang, Sang-ik. 2007. "New Trends of Medicine Manifested at Naeuiwon in the Late Chosun Period."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6(2): 151-160.
- Kim, Nam-Il. 2001. *Annals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medical's character*. Paju: dulnyouk press.
- Kim, Seong-Su. 2014. "The Medical Changes in the Late 18th Century." *Hanguk Munhwa*, 65: 99-134.
- Lee, Hong-shik. 2015. "Investigation on Change Progress of Beijing Liulichang Records in Yeonhaengrok and the Meaning."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41: 339-375.
- Lee, Hye-jung. 2019. "19th century from China to Joseon in a list of Shanghai Bookstores."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80: 361-379.
- Lee, Jeong-hwa. 2010. "Study on the References Cited in Jejung Sinpyeon." *Seojihakbo*, 35: 61-82.
- Lee, jeong-hyeon. 2020. *List of Korean Medical old book*. Daeje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Lee, Ji-hyang. 1997. *A study on the effects of jing-yue-guan-shu's fu-ren-gui sector on the gynecology in the medical texts in the late cho-sun dynasty*.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ee, Jin-cheol. 2017. *A study of Hwang Doyeon's Medical thought through Uijongsonik*. Doctoral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ee, Young-won, & Yoon, Chang-Yeul. 1991. "The life and medical idea of Chu, Dan-Gae none As concerned the life and the medical idea of Choo."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5: 200-251.
- Oh, Chae-Kun. 2018. "The New Theory of Traditional Medicine Appeared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Korean Journal of the Social History of Medicine and Health*, 1: 39-73.
- Park, Hun-Pyeong. 2017. *List of Japanese colonial era's general list of Uisaeng, Vol. 1*. Daeje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Park, Hun-Pyeong. 2018a. *A total list of medical Bureau from the Joseon Dynasty*. Daeje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Park, Hun-Pyeong. 2018b. *Suffer from the measles of Joseon*. Seoul: Minsokwon.
- Park, Hun-Pyeong. 2019a. "A Study on Text of Dugwa-hwipyen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7: 213-230.
- Park, Hun-Pyeong. 2019b.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use of Cold Damage related literatur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8(3): 649-684.
- Park, Hun-Pyeong. 2020. "A preliminary review for the study of medicinal vocabulary contained in the literature on the names of object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33(2): 37-43.
- Park, Hun-Pyeong. 2020. "A Preliminary study of Seo Byung-Hyo." *Journal of Medical Classics*, 33(3): 49-61.
- Park, Su-Mil. 2011. "The way of importing Chinese books and its Meaning in Chosun Dynasty." *Journal of East Asian cultures*, 50: 125-154.
- Seo, Bong-Deok. 2004. *Medicine idea of Jeong Yak-yong seen in uilyeong*.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Seo, Bong-Deok. 2009. *Medical Historical Research on MaKuaHoiTong*. Doctoral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Seol, hye-sim. 2020. *Global history of ginseng*. Seoul: Humanist.
- Shin, ik-cheol. 2009. "Book Exchanges between Koreans and Chinese in the Early 18th Century: Focusing on the Records of Traveling to Beijing by Joseon Intellectuals." *Taedong yearly review of classics*, 25: 1-38.
- Tashiro Kazui. Translated by Jung Sung Il. 2005. *Waekwan*. Seoul: Nonhyungbook.
- Yang jeong-pil. 2017. "Changes in the Ginseng Trade and Operations of Gaesung Merchants in the 17th to Early 18th Century." *Tamla Culture*, 55: 107-144.
- Yoo, Joon-Sang. 2013. *A study about medical thought of Myoung-Shin Zhu in Euimunbogam*.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